



이런 존 지에게 감 화를 받은 도적떼들이 구도의 길을 떠나고 있다.

5백도적 나한되는 대평원의 드라마

불교영화 '카루나' 몽골촬영 현장취재

2천5백년전, 부처님제자 아란존자에 의해 나한이 된 5백도적이 몽골의 초원위에 화현했다.

시대를 뛰어넘어 재현된 오백도적의 무리는 이일복감독(51)이 제작중인 불교영화 '카루나'의 한 장면.

지난달 17일부터 21일까지 몽골 현지 촬영에 나선 '카루나'는 6백여명의 말과 현지 기마부대 장병 5백여명이 엑스트라로 동원되어 웅장한 장면을 연출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말들의 간격이 너무 벌어져서, 흩어지지 말고 곧장 달리도록 해, 자, 이번 한번으로 끝마칩시다. 레드-고.

이감독이 워키토기를 통해 산등성이 너머에 있는 조감독에게 한바탕 고향을 치고 특유의 몸짓으로 사인을 보낸다. 까마득한 초원 저편에 서서히 말이 나타나고 순식간에 합성기와 함께 출연기를 일으키며 짚주한다. 사방에서 카메라가 돌아



○몽골의 기마부대원 5백명이 오백도적의 도적떼를 막아내려 달려들었다.

말 6백필 장병 5백여명 엑스트라로 동원

가고 험기까지 동원되어 5백필의 말이 달리는 웅장한 모습을 필름에 담아낸다.

촬영장소는 몽골수도 울란바트르에서 1백여km 떨어진 비양참드란. 1백50만평의 초원위에 수차례의 NG를 거듭하자 말들이 지쳐가는 풍여의 목소리가 다급하다.

설씨 30도가 웃도는 땀발아래서 2~3km를 쫓던 말까지 내어 수차례 달리다 보니 사람보다 많이 먼저 지쳐버린 것이다.

새벽부터 시작된 초원에서 말들이 질주하는 장면은 점심 무렵에야 끝이 났다.

당초 5백필의 말이 질주하는 장면은 제주도에서 촬영하기로 돼 있었다. "관객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는 적당히 넘어가서는 안된다"는 이감독의 소신으로 사실상 표현을 위해 몽골촬영이 강행됐다. 더구나 말 한 필 빌리는데 20만원 하는 국내 사정에 비해 몽골에서는 약 4천원에 불과해 제작비 절감의 효과도 보였다.

올 추수에 개봉될 '카루나'는 남과 북이 불교의 지비정신으로 용서와 화해를 통해 민족연합인 통일을 이루자는 광복 50주년 통일영화.

고려도종 후에 양천수 일가의 비극을 담고있는 이 영화는 두 아들이 6·25전쟁이 일어나

자 국군과 인민군으로 갈려 서로 총부리를 겨누게 되고 그 2세대들이 통일을 염원하며 비극 청자를 재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몽골촬영은 영화에서 3분가량의 상상하는 장면이다. 5백도적이 도적떼를 하던중 부처님의 지비사상에 감화되어 나한의 경지를 증득하는 내용으로 남북간의 화해를 상징하고 있다.

오후 촬영은 도적떼가 마을을 약탈하던중 아란존자에게 감화를 받는 장면.

여름이면 밤10시까지 해가지지 않는 몽골의 자연환경으로 촬영팀을 괴롭혔다.

'카루나'는 여주인공 목소리의 삭발장면을 끝으로 촬영을 마치고 오는 20일경 첫 시사회를 갖는다.

이감독은 "한국영화의 자존심을 세계에 보이기 위해 내년 칸느와 베를린영화제에 '카루나'를 출품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관련 인터뷰 7면)

광복 50돌기념 특집 다큐물 다채

8·15광복 50주년을 맞아 bm과 BBS는 다채로운 특집다큐멘터리를 마련한다.

bm은 광복이후부터 현재까지 대체적인 한국불교의 흐름을 되짚어보는 '광복 50년 불교50대사건'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한다. 이인성 최상우씨등 4명의 PD가 공동으로 제작하는 이 프로그램은 1백본 방송용으로 불교가 어떻게 가야할 것인가를 재점검해 보는 프로.

광복이후 1940~50년대해방공간의 불교에서 △한국전쟁과 불교(50~53년대) △불교정화운동의 전개와 성과(54~60년대) △불교현대화운동의 열망(70년대) △민중불교운동의 전

광복 50돌기념 특집 다큐물 다채

해방이후 한국 불교계 50대 주요 사건 되짚어
개회승 이동인 활동상·소안도 독립운동 방송

개와 성과(80년대) △해방 50년 변화한불교,종단개혁운동의 성과와 문제점까지 다사다난했던 반세기의 한국불교 50년의 불교역사가 펼쳐진다.

BBS는 광복 50주년 특집으로 '사라진 개회승 이동인'과 '소안도 아리랑'을 제작한다.

'사라진 개회승 이동인'은 일

본에 건너가 근대적인 문물과 제도,사실을 흡수하여 유대치, 김육균,박영호,서재필 등에게 전해주었고 게이요대학의 설립자인 후쿠자와 유키치의도 교류한 신승귀환한 인물로 평가되는 이동인스님의 활동상을 총체적으로 파악하는 프로이다.

불교방송 취재팀(김정화,유진화D 김상영교수)은 지난 13일부터 23일까지 11일간 교토, 히가시 혼간시,동본원사,가라즈의 고덕사,조부바도서관등을 찾아 이동인스님이 거쳐간 제취를 더듬어 보고 제일 한국인 사학자 한석희,김재현,이진희선생을 만나 이동인스님의 진실을 재확인했다.

김일우 기자

"불교에는 성차별 없다"

이영자 교수 '불교여성론' btm서 특강



'불교에서의 여성은 과연 열등한가?' 등극대 이영자교수(불교학)는 지난 23일 구룡사 문화회관 1층에서 열린 btm특강에서 이같은 주제의 강연을 통해 불교에서의 여성은 결코 열등하지 않음을 역설했다.

요즘을 통해 지난 27일 방영된 이교수의 강연 내용을 소개한다.

강연요지

불교가 추구하는 목적은 해탈, 성불이다. 해탈이란 궁극적 자유, 해방을 우리인간이 체할적으로 증득함을 의미한다. 이 목적을 여성이 실현할 수 없다면 불교에서 보는 여성은 열등하다고 보겠다. 그러나 BC 6세기의 경전에 보면 많은 여성제자들이 스스로 해탈의 경지에 올랐음을 부처님께서 시로 읊은 기록들이 나타나고 있어 여성과 남성이 평등함을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이 성불관은 초기불교와 대승불교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였는데 부파불교 즉 소승불교에서는 여성의 성불이 불가능하다는 사상이 나타난다. 그러다가 초기 대승불교시대가 되면 여성이 성불할 수 있지만 남성의 몸으로 변신해야 가능하다는 사상으로 변천한다.

이러 대승불교시대에는 남성이나 여성이 평등하게 성불하며 여성은 여성의 몸 그 자체로서 성불한다고 한다. 이러한 성불관의 변천은 인도 사회의 가부장적 사회제도와 관련이 없지않다. 부라미니즘 사회의 가부장적 제도에도 불구하고 대승불교의 경전은 완전한 양성평등의 이념을 구현하고 있다. 이 목적을 여성이 실현할 수 없다면 불교에서 보는 여성은 열등하다고 보겠다. 그러나 BC 6세기의 경전에 보면 많은 여성제자들이 스스로 해탈의 경지에 올랐음을 부처님께서 시로 읊은 기록들이 나타나고 있어 여성과 남성이 평등함을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이 성불관은 초기불교와 대승불교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였는데 부파불교 즉 소승불교에서는 여성의 성불이 불가능하다는 사상이 나타난다. 그러다가 초기 대승불교시대가 되면 여성이 성불할 수 있지만 남성의 몸으로 변신해야 가능하다는 사상으로 변천한다.

이러 대승불교시대에는 남성이나 여성이 평등하게 성불하며 여성은 여성의 몸 그 자체로서 성불한다고 한다. 이러한 성불관의 변천은 인도 사회의 가부장적 사회제도와 관련이 없지않다. 부라미니즘 사회의 가부장적 제도에도 불구하고 대승불교의 경전은 완전한 양성평등의 이념을 구현하고 있다. 이 목적을 여성이 실현할 수 없다면 불교에서 보는 여성은 열등하다고 보겠다. 그러나 BC 6세기의 경전에 보면 많은 여성제자들이 스스로 해탈의 경지에 올랐음을 부처님께서 시로 읊은 기록들이 나타나고 있어 여성과 남성이 평등함을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이 성불관은 초기불교와 대승불교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였는데 부파불교 즉 소승불교에서는 여성의 성불이 불가능하다는 사상이 나타난다. 그러다가 초기 대승불교시대가 되면 여성이 성불할 수 있지만 남성의 몸으로 변신해야 가능하다는 사상으로 변천한다.

이러 대승불교시대에는 남성이나 여성이 평등하게 성불하며 여성은 여성의 몸 그 자체로서 성불한다고 한다. 이러한 성불관의 변천은 인도 사회의 가부장적 사회제도와 관련이 없지않다. 부라미니즘 사회의 가부장적 제도에도 불구하고 대승불교의 경전은 완전한 양성평등의 이념을 구현하고 있다. 이 목적을 여성이 실현할 수 없다면 불교에서 보는 여성은 열등하다고 보겠다. 그러나 BC 6세기의 경전에 보면 많은 여성제자들이 스스로 해탈의 경지에 올랐음을 부처님께서 시로 읊은 기록들이 나타나고 있어 여성과 남성이 평등함을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이 성불관은 초기불교와 대승불교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였는데 부파불교 즉 소승불교에서는 여성의 성불이 불가능하다는 사상이 나타난다. 그러다가 초기 대승불교시대가 되면 여성이 성불할 수 있지만 남성의 몸으로 변신해야 가능하다는 사상으로 변천한다.

월드컵 유치위해 교계서 초청 국내서만 논의상태...시기 아직 못정해

월드컵 유치위해 교계서 초청 국내서만 논의상태...시기 아직 못정해



월드컵 유치위해 교계서 초청 국내서만 논의상태...시기 아직 못정해

월드컵 유치위해 교계서 초청 국내서만 논의상태...시기 아직 못정해

"올해도, 연료비가 작게들어 경제적인 귀뚜라미보일러 터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김인배
남양주시 전점들 금곡 3리 792

귀뚜라미 비닐하우스 양어장용 보일러가 풍요한 결실을 약속합니다

국내 보일러 판매 1위 회사인 저희 귀뚜라미가 만든 쉘형 보일러는 수박, 토마토, 특용작물 재배 및 양어장에서 그 전기가 맞습니다. 가동이 중단되면 급속하게 공기가 냉각되어 작물에 피해를 주는 기존 온풍기와는 달리 귀뚜라미 보일러는 하우스내 흠바닥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열이 공급되기 때문에 급격한 온도변화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경운기기를 등 면세유를 사용할 수 있는 귀뚜라미의 세계적인 신기술인 터보 소용돌이배너가 부착되어 연료비가 훨씬 적게들입니다. 또한 이상이 있을시 전국 161개 대리점망을 통한 신속한 A/S실시로 사시사철 안정적인 수확이 보장됩니다.

귀뚜라미 황형보일러

보일러 국민 1호기로서 최상의 수확을 자랑합니다. 품질규조로 변질의 염려가 낮은 하우스 결실에 적합합니다.

대표전화 : 02) 798-5126